

WEEKLY



startup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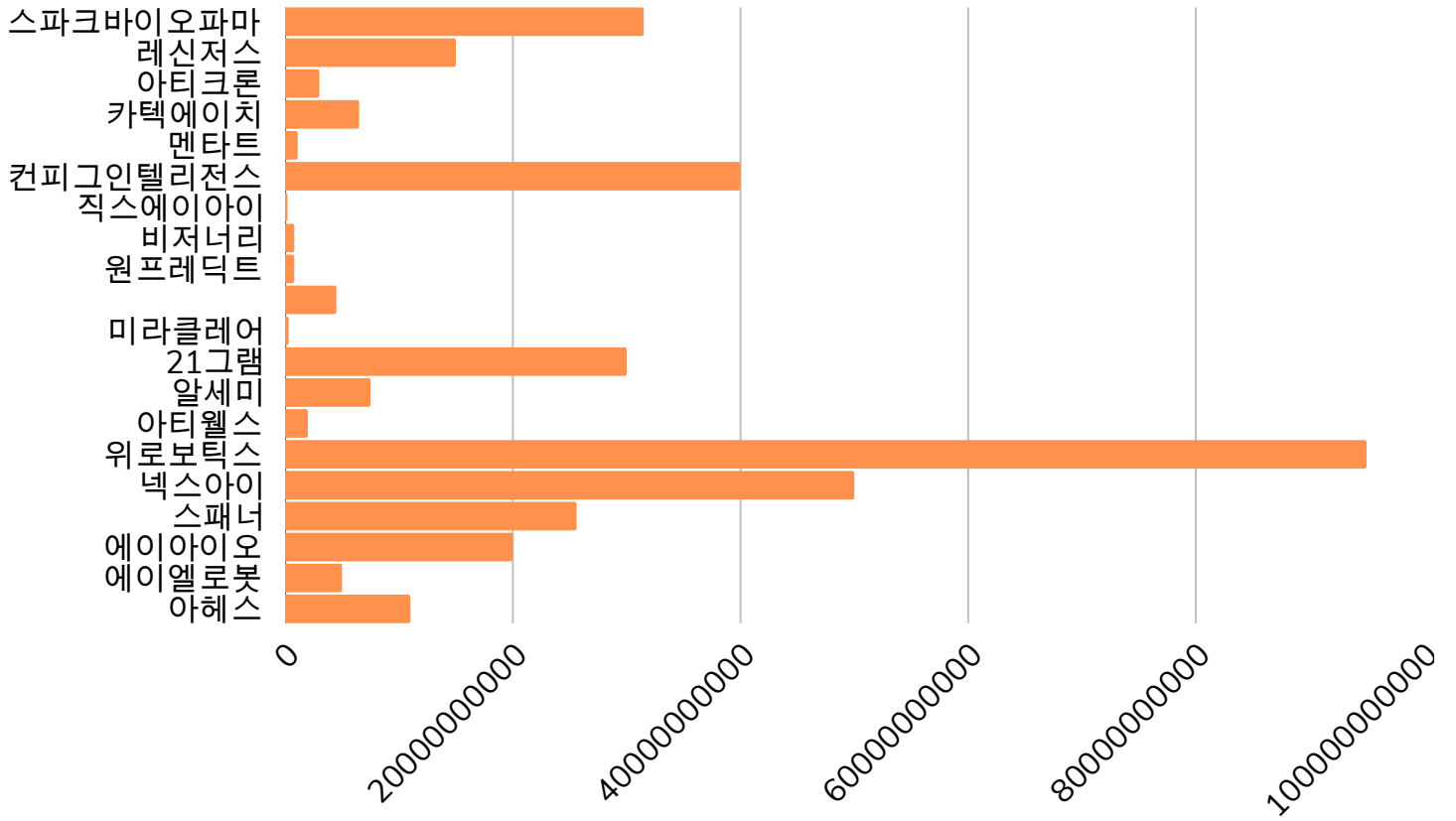
RECIPE FOR STARTUP

STARTUP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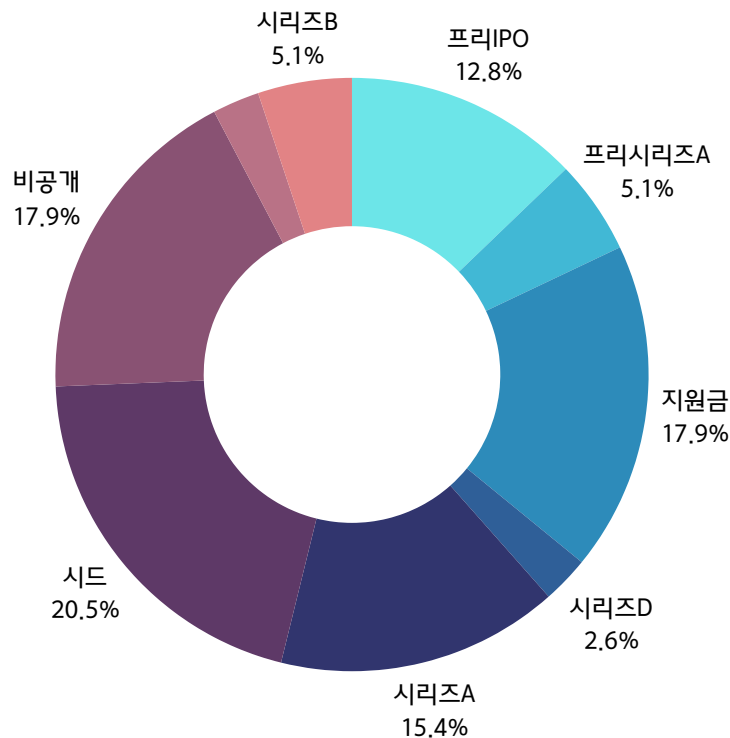
2026년 5월 11-15일 주간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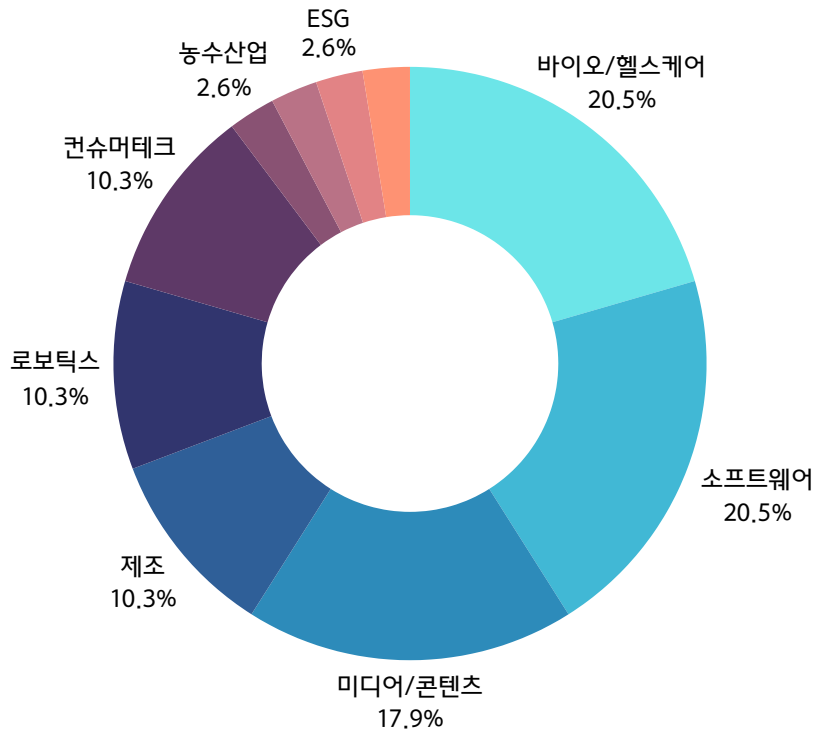
● 투자금



2026년 5월 11~15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수는 39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20개 기업이 2,598억 투자를 유치했다.

단계별/분야별 투자 규모





이번주 단계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시드가 20.5%, 마찬가지로 초기 성격인 지원금이 17.9%로 뒤를 이었고 시리즈A가 15.4% 순을 나타냈다. 눈길을 끄는 건 프리IPO가 12.8%라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는 것이다. 분야별 투자 규모를 보면 소프트웨어와 바이오/헬스케어가 각각 20.5%를 기록한 가운데 미디어/콘텐츠가 17.9%, 제조와 로보틱스, 컨슈머테크가 10.3%를 각각 기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고른 분포를 보였다.

주요 투자 유치 기업

주요 투자 유치 기업을 살펴보면 로봇 기업인 위로로빌긱가 95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고 건설 장비 자동화 기업인 스페너가 256억원 시리즈B 브릿지를, 피지컬 AI 기술 개발 기업인 컴피그인텔리전스가 400억 원에 이르는 시드 투자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투자는 아니지만 하나금융그룹이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인 두나무 지분 6.55%를 1조 33억 원에 인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스파크바이오파마 : 315억원 프리IPO



혁신신약 개발기업 스파크바이오파마가 산업은행과 주요 금융기관, 바이오 전문 투자사들이 참여한 Pre-IPO 라운드에서 315억 원을 확보하며 코스닥 상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6년 설립된 이 회사는 표현형 기반 플랫폼 'PhenoCure™'와 AI 활용 플랫폼 'PPICure™'를 통해 저분자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발굴·설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 SBP-401을 비롯해 고형암, 이상지질혈증, 뇌신경계 질환 등 다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며, 핵심 파이프라인은 임상 2a상 단계에 진입해 글로벌 기술이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투자금은 임상 데이터 확보와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 기회 확대에도 활용된다. 스파크바이오파마는 이를 통해 IPO 절차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혁신신약 기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레신저스 : 150억원 시리즈D



통신 네트워크 기업 레신저스가 150억원 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라운드에는 산업은행,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SW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주요 투자기관이 참여했으며, 특히 나스닥 상장사 포엣 테크놀로지(POET Technologies)가 전략적 투자자로 합류해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레신저스는 차세대 1.6T 광인터커넥트 공동개발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고성능컴퓨팅(HPC) 클러스터 인프라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 투입해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라운드 클로징은 레신저스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아티크론 : 30억원 프리시리즈A

아티크론이 Pre-A 라운드에서 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며 메모리 중심 AI 반도체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이노폴리스파트너스와 HB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회사는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SRAM-CIM 기반 NPU IP인 ART와 AI 기반 SRAM IP 자동화 플랫폼 DALUS의 성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티크론은 메모리를 단순 저장 장치가 아닌 연산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온칩 SRAM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를 통해 엣지 AI 환경의 전력·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RT는 모듈형 설계를 기반으로 웨어러블, 보안카메라, 로봇틱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하며 외부 메모리 시스템과의 연동도 지원한다. DALUS는 반복적인 회로 설계와 시뮬레이션 과정을 자동화해 고객 맞춤형 SRAM IP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투자사들은 아티크론의 SRAM 설계 기술력과 AI 기반 자동화 역량, 그리고 CIM 기반 NPU IP의 확장성을 높게 봤다. AI 반도체 시장이 연산 성능 경쟁에서 전력 효율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투자 배경으로 꼽힌다.

카텍에이치 : 65억원 시리즈A



CATAACKH
THINK EARTH, THINK HUMAN

친환경 탄소섬유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카텍에이치가 최근 35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올해 누적 투자액을 65억 원으로 늘렸다. 이번 라운드에는 포스코기술투자자와 패스파인더H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투자자 성격의 자금이 포함돼 사업 확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카텍에이치는 폐탄소섬유를 회수해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으로, 탄소중립 기조와 맞물려 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투자 유치는 기술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VC 업계는 카텍에이치가 보유한 공정 기술과 친환경 소재 시장의 성장성을 주요 투자 배경으로 꼽고 있다.

멘타트 : 11억원 시드

MENTAT

리걸테크 스타트업 멘타트가 변호사용 AI 서면 작성 솔루션을 고도화하기 위해 11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콜라보레이티브펀드 아시아가 리드로 참여했고, 액셀러레이터 크립톤과 금융 AI 기업 어니스트AI가 함께했다. 멘타트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자동 생성하는 FSD 모드와, 변호사가 문단 단위로 AI와 협업해 문서를 완성하는 Co-pilot 모드를 제공한다. 개인 변호사와 중소형 로펌을 위한 종량제 구독 모델, 대형 로펌·법무팀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기반으로 5월 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비공개 베타테스트에서는 60명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서면 작성 시간이 최대 95%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멘타트는 변호사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검토와 초안 작성 부담을 줄여 전문 업무에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사들은 법률 도메인 이해와 AI 제품 구현 역량을 겸비한 팀 구성에 주목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컨피그인텔리전스 : 400억원 시드

* Config Intelligence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는 컨피그인텔리전스가 약 40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확보하며 로봇 지능 개발 기업으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삼성벤처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현대자동차그룹 제로원, LG테크놀로지벤처스, GS퓨처스, SK텔레콤,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이 합류했다. 컨피그인텔리전스는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행동 데이터를 직접 생산해 범용 로봇 지능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람이 물건을 집고 옮기고 정리하는 일상 동작을 기록해 로봇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구조로, 이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로봇 AI 데이터 공장'을 설립했다. 약 300명의 작업자가 카메라와 로봇 손을 착용한 채 빨래 개기, 음식 옮기기, 책상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공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돼 현재까지 10만 시간 이상의 행동 데이터를 축적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전용 데이터 공장을 구축한 사례는 컨피그인텔리전스가 처음으로, 대기업 CVC의 대규모 투자가 더해지며 로봇 지능 개발 경쟁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

직스에이아이 : 2억원 시드

Ziggs AI

Agent collaborations around the world

AI 에이전트 협업 플랫폼 스타트업 직스에이아이가 지난해 10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2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직스에이아이는 향후 2년간 최대 8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경기혁신센터는 직스에이아이가 AI 패러다임을 '단일 목적형 보조 도구'에서 '협업형 에이전트 네트워크'로 전환하려는 비전과 기술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직스에이아이는 확보된 자금을 핵심 AI 협업 엔진 고도화와 개발자 생태계 확대에 투입하며, 차세대 AI 협업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AI 자동화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비저너리 : 8억원 시드



공간 지능 데이터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비저너리가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와 엠와이소셜컴퍼니로부터 총 8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핵심 제품 'PRISM'은 자율주행·모빌리티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공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공·구조화하는 데이터 운영체제로, 라이다와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선별해 차세대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구축 시간을 최대 90%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비저너리는 자체 개발한 '데이터 플라이휠' 구조를 통해 자동화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현대자동차·42dot·HL클레무브·KAIST·서울대 등과 R&D 과제를 진행 중이다. 이번 투자로 회사는 국내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의 방대한 공간 데이터를 AI 활용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원프레딕트 : 8억원 프리IPO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원프레딕트가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추가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원프레딕트는 최근 안다시아벤처스로부터 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번 라운드에서 기업가치 1500억 원을 인정받았다. 최근 동종 업계의 상장 도전이 이어지면서 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원프레딕트는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IPO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원프레딕트의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노제닉스 : 45억원 시리즈A



액체생검 기반 정밀진단 기업 이노제닉스가 한국자산캐피탈, 코오롱제약, 연세바이오헬스기술지주, 이화여대기술지주 등으로부터 총 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투자로 회사의 대장암 조기진단 혈액검사 'ONCOCHECK' 기술력과 상업화 가능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ONCOCHECK은 전혈 기반 RNA 바이오마커와 인공지능 분석을 결합해 기존 cfDNA 검사 대비 정밀성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진행선종 민감도 91%, 조기 대장암 민감도 95%라는 성능을 확보했다. 약 3ml 혈액으로 3시간 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내시경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로 평가된다. 이노제닉스는 확보한 자금을 통해 확진 임상과 인허가를 가속화하고, 국내 건강검진센터와 협력해 비급여 시장에 진입한 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편입과 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는 CLIA 기반 LDT로 초기 진입 후 FDA 허가를 통해 글로벌 확장을 모색한다. 회사는 향후 폐암, 췌장암 등으로 진단 플랫폼을 확대하며 조기 암검진의 새로운 표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라클레어 : 3억원 시드



의료기기 스타트업 미라클레어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며 수면 이갈이 진단기기 '굿딤스'의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굿딤스는 EMG 기반 웨어러블 기기로서, 수면 중 이갈이·이악물기 활동을 실시간 감지해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국내 의료기기 2등급 인허가를 완료한 데 이어 대만, 유럽 CE, 미국 FDA 인증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 모델 '굿딤스 프로'는 국제 기준 설계를 마쳐 해외 인허가 절차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대학병원과 치과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임상 연구도 서울대치과병원, 세브란스치과대학병원 등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UIC와 다인종 공동임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라클레어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굿딤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바이오피드백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무의식적 이갈이를 인식·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투자로 회사는 국내외 시장에서 상업화와 보험 적용을 본격화하고, EMG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1그램 : 300억원 시리즈C



국내 1위 반려동물 장례 플랫폼 21그램이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약 500억 원에 경영권을 인수한 데 이어 이번 자금 투입으로 누적 투자액은 800억 원에 달한다. 반려동물 장례시장은 노령화와 동물보호법 개정, 시민 의식 변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32년에는 21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그램은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전국적 인프라망 구축에 나서며, 영세한 장례식장 중심의 파편화된 시장을 통합하고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불투명한 가격 체계와 낙후된 시설 문제를 개선하고 프리미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투자로 21그램은 펫 엔드오브라이프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알세미 : 75억원 시리즈A 브릿지



피지컬 AI 기반 제조 혁신 기업 알세미가 75억 원 규모의 브릿지 투자를 확보하며 반도체 제조 자동화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라운드에는 라구나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나우IB캐피탈,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했으며 누적 투자액은 168억 원으로 늘었다. 알세미는 AI와 물리 모델링을 결합해 반도체 소자의 특성과 공정 변수를 예측·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반도체 물리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 자동화와 제조 공정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험을 갖춘 투자자가 리드한 점이 주목되며, 국내 기술 자립 가능성을 확인하는 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EDA 시장이 미국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인 가운데, 알세미는 피지컬 AI 기반 대안 솔루션 상용화를 통해 북미·대만 등 주요 반도체 거점에서 고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제조 자동화가 인구 감소 시대의 필수 전략이라며 글로벌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티웰스 : 20억원



AI 기반 금융 솔루션 기업 아티웰스가 한국평가데이터로부터 약 2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아티웰스는 절세 시뮬레이션, 기업 업무 자동화 등 AI·빅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협업 구조를 공고히 하고 사업 고도화와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사는 그동안 신용정보·상권·부동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상권 분석, 창업 전략 지원, 상가 임대료 추정, 부동산 위험도 진단 플랫폼 등 다양한 신사업을 공동 추진해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이번 투자가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티웰스는 데이터·AI 결합 역량을 강화해 금융·부동산 분야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로보틱스 : 950억원 시리즈B

WIRobotics
WE INNOVATE

글로벌 로봇기업 위로보틱스가 95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라운드는 JB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하고 기존 투자사 전원이 참여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위로보틱스는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WIM'을 통해 3,000대 이상 판매 실적과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을 쌓았으며, 매출은 매년 두 배 이상 성장해왔다. CES 혁신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가운데, 이번 투자금은 휴머노이드 로봇 'ALLEX' 개발과 양산 체계 구축에 집중된다. 올해 말 연구용 플랫폼을 선보이고 내년 말 본격 양산을 목표로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엔비디아·AWS와의 협력으로 차세대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 중이며,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한 캘리포니아 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공동대표들은 웨어러블 로봇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K-휴머노이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대량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이아이오 : 200억원 프리IPO

the **aio**
INNOVATION IN FLASH STORAGE

낸드 컨트롤러 전문 팹리스 기업 에이아이오(AIO)가 bnw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자금 조달은 2022년 첫 투자 이후 사업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에 따라 프리IPO 단계에서 진행된 것으로, 에이아이오의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 낸드 컨트롤러는 반도체 메모리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국산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에이아이오는 이를 선도할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에이아이오는 기술 개발과 상장 준비를 가속화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업계는 에이아이오가 확보한 기술 경쟁력과 시장 확장 가능성이 IPO 성공 가능성을 높이며, 국산 낸드 컨트롤러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엘로봇 : 50억원 프리IPO



로봇 정밀제어 부품기업 에이엘로봇이 상장을 앞두고 5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를 1,60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투자에는 현대차증권이 참여해 보통주를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에이엘로봇은 상장 준비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63억 원 수준이던 현금성 자산은 이번 투자로 약 1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업가치는 지난해 프리IPO 라운드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2017년 설립된 에이엘로봇은 센서와 제어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로봇·산업 장비·의료·자동차 분야에 부품을 공급해왔다. 정밀제어 기술을 앞세워 국내외 주요 로봇기업과 협력하며 입지를 넓혀왔고, 올해 2월 기술성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소재·부품·장비 특례 트랙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고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주식 구조 정비도 마쳤으며, 기술성평가 유효기간을 고려할 때 오는 8월 이전 예비심사 청구가 예상된다.

아헤스 : 110억원 시리즈A



그린수소 생산 설비 기업 아헤스가 시리즈A 라운드를 최종 마무리하며 총 1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올해 초 1차 클로징 이후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프렌드투자파트너스와 패스파인더에이치가 각각 20억 원, 30억 원을 투자했다. 이번 자금은 생산능력 확충과 차세대 수전해 기술 고도화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활용된다. 아헤스는 포스코그룹과의 협력 논의도 진행 중으로, 대형 산업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그린수소 분야에서 아헤스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는 아헤스가 확보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며 IPO 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스아이 : 500억원 프리IPO



넥스아이(바이오텍)가 총 500억 원 규모의 pre-IPO 투자를 확보하며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라운드에는 DSC인베스트먼트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투자사들이 대거 후속 참여했고, 산업은행과 DS자산운용 등 신규 기관도 합류했다. 회사는 면역항암제 불응성 암을 겨냥한 치료제와 ADC 기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며, 지난해 일본 오노약품과 후보물질 NXI-101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넥스아이는 기술성평가 통과 이후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추진 중이며, 이번 투자금은 NXI-201 글로벌 임상과 차세대 ADC 연구에 투입된다. 회사는 복수 파이프라인 개발을 진행 중이며 GC녹십자와의 공동 ADC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넥스아이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기술 경쟁력에 대한 시장 신뢰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패너 : 256억원 시리즈B 브릿지



건설 장비 자동화 기업 스패너(스패너)가 시리즈B 브릿지 라운드에서 256억 원을 확보하며 누적 투자금 526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투자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KB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으며, 회사는 핵심 기술인 X1 키트를 기반으로 기존 장비를 자동화 장비로 전환하는 SDM 모델을 구축해왔다. X1 키트는 장비 제어 장치와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현장 관제 플랫폼과 운영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스패너는 장비 구매 없이 월 구독 방식으로 자동화를 적용하는 AaaS 모델을 도입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고, 미국 태양광·BESS·AI 데이터센터 현장에서 빠르게 수요를 확보했다. 매출은 2023년 38억 원에서 지난해 30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630억 원 이상을 전망한다. 미국 주요 EPC 기업과의 협업이 확대되며 공기 단축과 인력 절감 효과도 입증됐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검증된 구독 모델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주간 체크 포인트

지역 벤처 투자 수익률 11.6%...더 높일 방안은?=정부가 지역 벤처펀드의 우수한 수익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고도화한다. 올해부터 모태펀드의 지역 투자 의무를 강화하고 5년간 2조원 규모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며 권역별 투자센터를 신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자생적인 투자 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 최근 5년 내 청산한 지역펀드가 11.6% 수익률을 기록, 지역 투자의 수익 성과 가능성 입증. 2026년 모태펀드 자펀드에 지역 투자 20% 의무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투자 운용사 우대. 2030년까지 2조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5개 지역에 4,500억원 규모 우선 조성. 4대 과학기술원이 출자자로 참여, 각 기술원 중심의 창업도시 특화 펀드를 운영. 광주(서남권), 대전(중부권), 대구(대경권)에 투자 센터를 신설하고 부산사무소를 동남권 센터로 확대. 신설된 투자센터는 지역성장펀드 운용과 더불어 현지 출자

기관 발굴 및 벤처캐피탈 육성 전담. 지방 소재 운용사 비중이 전년 대비 상승(8.8%→13.3%)하며 지역 중심의 투자 기반이 넓어지는 추세.

2026년 5월 11-15일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스파크바이오파	혁신 신약 개발	315억원	프리IPO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캐피탈, 에스제이지파트너스, 엠포드에쿼티,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플렉서스파트너스, AOA캐피탈파트너스, 제이바이오투자조합
아티크론	메모리 중심형 AI 반도체 IP	30억원	프리시리즈A	이노폴리스파트너스, HB인베스트먼트
레이팅랩스	글로벌 K팝 참여형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모아이스	AI 모션분석	비공개	지원금	팁스
레신저스	통신 네트워크	150억원	시리즈D	산업은행, 스마트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포엠텔크놀로지
카텍에이치	탄소섬유 재활용	65억원	시리즈A	포스코기술투자, 패스파인더H
멘타트	변호사용 AI 도구	11억원	시드	콜라보레이티브펀드아시아, 크립톤, 어니스트
직스에이아이	AI 에이전트 협업 플랫폼	2억원	시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미드나잇웨이브	음원 IP 기반 종합 엔터테인먼트	비공개	시드	매쉬업벤처스, 슈미트
마테오시스튜디오	AI 기반 콘텐츠 제작	비공개	지원금	팁스
컨피그인텔리전스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400억원	시드	삼성벤처투자, 제로원, LG테크놀로지벤처스, GS퓨처스, SK텔레콤, 미래셋벤처투자
소프트바이오움	콩 발효 부산물 업사이클	비공개	기타(비공개)	엠와이소셜컴퍼니
삶	AI 정신건강 데이터 플	비공개	시드	시엔젤클럽

	랫폼			
원프레딕트	AI 솔루션	8억원	프리IPO	안다아시아벤처스
이노제닉스	액체생검 기반 정밀진단	45억원	시리즈A	한국자산캐피탈, 코오롱제약, 연세바이오헬스기술지주, 이화여대기술지주
미라클레어	EMG 수면 이갈이 의료기기	3억원	시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그램	반려동물 장례 플랫폼	300억원	시리즈C	프렉시스캐피탈파트너스
에이닷큐어	심부전 상태변화 조기감지 AI	비공개	지원금	팁스
비저너리	공간 지능 데이터 OS	8억원	시드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엠와이소셜컴퍼니
아임뉴런	신약 플랫폼	비공개		효성벤처스
AAC홀딩스	뷰티 솔루션	비공개		효성벤처스
올커넥	디지털 치과 플랫폼	비공개	시드	시엔젤클럽, 에이아이엔젤-씨엔티테크 개인투자조합 3호, 인포뱅크
알세미	피지컬시 제조	75억원	시리즈A	라구나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나우IB캐피탈, 신용보증기금
마코빌	키즈 콘텐츠 IP	비공개	시리즈A	라구나인베스트먼트, 코나벤처파트너스
시안솔루션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비공개	시리즈A	KB증권
새팜	스마트농업	비공개	기타(비공개)	풀무원
올데이올가닉	프리미엄 펫푸드	비공개	기타(비공개)	씨엔티테크
이엑스	XR 문화 예술	비공개	지원금	팁스
콤에어	프랜차이즈 식자재 유통	비공개	인수합병	비버웍스
아티웰스	금융 솔루션	20억원	기타(비공개)	한국평가데이터

위로보틱스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950억원	시리즈B	J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하나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SBVA, NH투자증권, 컴퍼니케이, 자유투자, 퓨처플레이
넥스아이	혁신 항암제	500억원	프리IPO	DSC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케이투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퀴드자산운용,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DS자산운용, 인터베스트
스패너	건설 자동화	256억원	시리즈B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티알	디지털 의료기기	비공개	기타(비공개)	대웅제약, 네이버
와이즈허브	AI 웹툰 제작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엠디엑스	AI 서비스 로봇	비공개	지원금	팁스
위베어소프트	API 관리·보안	비공개	프리시리즈A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
에이아이오	낸드플래시 스토리지 솔루션	200억원	프리IPO	BNW인베스트먼트
에이엘로봇	로봇 정밀 제어 부품	50억원	프리IPO	현대차증권
아에스	그린수소 생산 설비	110억원	시리즈A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패스파인더에이치

스타트업레시피 | www.startuprecipe.co.kr

기사 제보 : news@startuprecipe.co.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 070-4048-4013